

그릿(grit)과 문제해결능력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인희¹, 김현주^{2*}

¹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Impact of Grit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Inhee Park¹, Hyun Joo Kim^{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hinsung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문제해결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자료수집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 총 130명 중 124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95.4%였다. 연구결과 그릿은 3.11점, 문제해결능력은 3.07점, 임상수행능력은 3.27점으로 나타났다. 그릿과 문제해결능력($r=.510$, $p<.01$), 임상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력($r=.381$, $p<.01$), 임상수행능력과 그릿($r=.522$, $p<.01$)이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점($\beta=.240$, $p=.002$), 진학동기($\beta=-.149$, $p=.041$), 임상실습만족도($\beta=-.199$, $p=.011$) 및 그릿($\beta=.329$, $p<.001$)이었고,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24.4%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간호학과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그릿,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grit and problem-solv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among fourth-year nursi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is descriptive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from March 1, 2024, to March 31, 202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 statistical program. Out of a total of 130 respondents, 124 participated, yielding a response rate of 95.4%. The results showed that grit scored 3.11, problem-solving skills scored 3.07, and clinical competency scored 3.27.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grit and problem-solving skills ($r=.510$, $p<.01$), clinical competency and problem-solving skills ($r=.381$, $p<.01$), and clinical competency and grit ($r=.522$, $p<.01$).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y included grade point average ($\beta=.240$, $p=.002$), motivation for further study ($\beta=-.149$, $p=.04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beta=-.199$, $p=.011$), and grit ($\beta=.329$, $p<.001$), with these factors explaining 24.4% of the variance. Therefo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ailored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various characteristics to enhance students' grit within the nursing curriculum.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Grit, Problem-Solving Ability, Clinical Competenc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2024 Sehan University Intramural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Hyun Joo Kim (hyjkim2012@gmail.com)

Received July 22, 2024

Revised August 6, 2024

Accepted October 20, 2024

Published October 28,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주목받고 있는 비인지적 요인 중 하나가 그릿(grit)이다. 그릿은 우리말의 '뚝심', '끈기'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그릿은 특정 도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활용되는 특성으로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인내와 열정"을 의미한다[1]. 그릿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끈기를 발휘하게 해준다[1-3]. 이에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달성하는 반면, 그릿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지루해하거나 포기하는 특성을 보인다[1]. 이러한 그릿은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과 우수성의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여겨진다[1]. 그릿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간호학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간호학은 변화하는 의료현장에 요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과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고려한 신속한 문제해결이다. 따라서 간호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그릿이다[5, 6]. 문제해결능력이란 현재 발생한 문제의 원인 및 상태를 인지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창의적이고 지적인 능력으로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역량이다[7]. 임상 현장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건강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 함양이 중요하다[9].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수행능력과도 연관되어 있다[10].

임상수행능력은 간호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10].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10]. 임상수행능력은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며, 의료현장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문

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분석 등을 통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12].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실습이 필요하지만, 실습지 확보 등의 문제로 임상실습의 확대가 어려워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뮬레이션 실습 등이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수행능력은 개인의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릿과 학업 관련 연구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13,15], 자기주도성[5], 자기주도 학습능력[16-18] 등이 있었다. 그릿과 문제해결능력[5], 임상수행능력[15, 19]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문제해결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의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문제해결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방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 1) 대상자의 그릿,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문제해결능력이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그릿,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4학년의 그릿과 문제해결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 지역 소재 대학교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

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기준 효과크기 .15, 1종 오류 .05, 검정력 .95, 독립변수의 수 2개(그릿, 문제해결능력)를 지정했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07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과 회수율을 고려해 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으로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였다. 설문지는 100% 회수하였으나 응답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6부를 제외하고 최종 1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 진행 과정 및 참여 과정 중 철회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그릿(Grit)

그릿은 Park 등[20]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그릿 측정도구(Clinical Nurses Grit scale, CN-GRIT)를 이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끈기' 5문항, '간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열정' 5문항, '환자 지향성 내재 동기' 4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2.3.2 문제해결능력

간호사의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는 Heppner와 Petersen[21]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개의 하위영역으로 문제해결 자신감 12문항, 접근-회피 스타일 13문항, 개인적 통제 7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 문항(접근-회피 스타일 영역 13~25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6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에서는 Lee 등[22]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Choi [23]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은 하위영역으로는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

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5개 영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 .96이었으며, Choi[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7이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릿,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및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 3) 대상자의 그릿,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124명으로, 여자 79%(98명), 남자 21%(26명)이며, 연령별로는 20~24세가 58.9%(73명)로 가장 많았다. 학점 분포는 3.0~3.4점이 35.5%(44명)로 가장 많았으며, 진학 동기에 있어서는 높은 취업률에 이끌려 진학한 경우가 33.9%(42명)로 가장 많았다. 전공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30.6%(38명), '보통이다'가 62.1%(77명), '불만족 한다'가 7.3%(9명)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37.1%(44명), '보통이다'가 58.1%(72명), '불만족 한다'가 4.8%(6명)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그릿($t=2.547, p<.001$), 문제해결능력($t=5.552, p<.001$) 및 임상수행능력($t=.203, p=.831$)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그릿과 문

Table 1. Differences in Grit, Problem-Solving Ability,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Variables		n(%)	Grit		Problem-Solving Abilit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Total		124	3.11±0.48		3.07±0.51		3.27±0.43	
Gender	Female	98(79%)	3.04±0.39	2.547 (.001)	2.95±0.42	5.552 (.4.36)	3.26±0.28	.674 (.831)
	Male	26(21%)	3.39±0.66		3.52±0.59		3.26±0.33	
Age	20-24 years old	73(58.9%)	3.12±0.45	2.357 (.057)	3.09±0.52	2.372 (.056)	3.33±0.29	4.172 (.003)
	25-29 years old	28(22.6%)	3.10±0.56		3.26±0.42		3.27±0.25	
	30-34 years old	10(8.1%)	3.26±0.59		3.13±0.13		3.50±0.39	
	35-40 years old	2(1.6%)	3.10±0.10		2.87±0.02		2.97±0.10	
	45 years and older	11(8.9%)	3.02±0.46		3.75±0.23		3.07±0.35	
Grade Point Average	≤2.9a	20(16.1%)	2.74±0.42	7.430 (.001) a(d,c,b)	2.80±0.40	12.102 (.001) a,b(c,d)	2.74±0.47	7.013 (.001) a(d,c,b)
	3.0-3.4b	44(35.5%)	3.16±0.48		3.22±0.61		3.30±0.37	
	3.5-3.9c	39(31.5%)	3.11±0.37		2.90±0.44		3.35±0.36	
	≥4.0d	21(16.9%)	3.37±0.54		3.34±0.24		3.35±0.25	
Motivation for Admission	Aptitude and interest	39(31.5%)	3.30±0.53	3.485 (.010)	3.25±0.58	2.933 (.024)	3.44±0.36	3.449 (.011)
	High employment rates	42(33.9%)	3.03±0.32		3.05±0.49		3.29±0.34	
	Due to encouragement from others	13(10.5%)	2.85±0.47		2.79±0.21		3.01±0.68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4(3.2%)	2.78±0.27		2.68±0.00		3.04±0.04	
	Valuable profession	26(21.0%)	3.15±0.56		3.02±0.50		3.17±0.4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8(30.6%)	3.20±0.50	1.434 (.242)	3.27±0.66	4.265 (.016)	3.34±0.34	1.589 (.208)
	Average	77(62.1%)	3.06±0.45		2.98±0.40		3.21±0.46	
	Dissatisfied	9(7.3%)	3.25±0.61		3.06±0.51		3.12±0.60	
Clinical Practicum Satisfaction	Satisfieda	44(37.1%)	3.30±0.52	5.879 (.004)	3.24±0.63	4.884 (.009)	3.45±0.36	10.788 (.001) a(b,c)
	Averageb	72(58.1%)	3.30±0.41		2.99±0.41		3.15±0.43	
	Dissatisfiedc	6(4.8%)	3.09±0.64		2.76±0.29		2.83±0.47	

p < 0.05

문제해결능력에서 평균이 더 높았다. 연령에서 그릿은 30~34세가 3.26±0.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F=2.357, p=.057), 문제해결능력은 45세 이상에서 3.75±0.23점(F=2.372, p=.056), 임상수행능력은 30~34세 3.50±0.39점으로 가장 높았다(F=4.172, p=.003). 학점은 4.0점 이상인 학생이 그릿(F=7.430, p<.001), 문제해결능력(F=12.102, p<.001) 및 임상수행능력(F=7.013, p<.001)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진학 동기에 따라서는 그릿(F=3.485, p=.010), 문제해결능력(F=2.933, p=.024), 임상수행능력(F=3.449, p=.011)에서 차이가 있었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학한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전공 만족도에 따른 그릿(F=1.434, p=.242), 문제해결능력(F=4.265, p=.016), 임상수행능력(F=1.589, p=.208)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수행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그릿(F=5.879, p=.004), 문제해결능력(F=4.884, p=.009), 임상수행능력(F=4.884, p<.001)은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높은 그릿

과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을 보였다.

3.2 그릿,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 간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그릿,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그릿과 문제해결능력(r=.510, p<.01), 임상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력(r=.381, p<.01), 임상수행능력과 그릿(r=.522, p<.01)이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Grit, Problem-Solving Ability,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124)

	Grit r(p)	Problem-Solving Ability r(p)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r(p)
Grit	1		
Problem-Solving Ability	.510**	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522**	.381**	1

**p<0.01

Table 3. Factors Affecting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N=124)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onstant)	2.156	.292		7.383	<.001	
	Grade Point Average	.111	.035	.240	3.190	.002	1.170
	Motivation for Admission	-.044	.021	-.149	-2.068	.041	1.112
	Clinical Practicum Satisfaction	-.152	.059	-.193	-2.574	.011	3.351
	Problem-Solving Ability	.080	.071	.093	1.123	.264	1.452
	Grit	.300	.077	.329	3.875	<.001	1.629
	R ² (Δ R ²)	.424(.651)					
	F(p)	17.377(<.001)					

3.3 간호대학생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점, 진학 동기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연구변수인 문제해결능력, 그릿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한 결과, VIF 값이 1.112에서 3.351 사이로 나타나 1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4. 논의

이번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문제해결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11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2.93점)보다 높았고[14],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41점)보다 낮았다[19].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연구대상자와 측정도구의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릿의 하위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진학 동기 중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그릿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고, 학점이 높은 학생들에게서 그릿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릿과 진로선택, 임상실습 만족도 및 학점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였다[24,25].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진로 결정 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 중 어려움

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흥미를 잃지 않고, 간호사가 되고자 노력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전공만족도에 따른 그릿 결과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릿이 높았으나[4,16], 이번 연구결과는 이례적으로 전공에 불만족하는 군(3.25점)이 전공에 만족(3.20점)하는 군보다 그릿이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 대상자는 간호학과 4학년으로 현재 전공에 만족도가 다소 낮더라도, 쉽게 전공이나 진로를 변경하기 어렵고, 간호사 면허 취득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07점으로 측정 도구는 다르지만 선행 연구들의 점수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17]. 이번 연구의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이다. 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을 거의 마친 상태이며, 다양한 임상현장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교내외 실습을 통해 접한 문제 이외에도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학년, 연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 정확히 원인 분석은 어렵다[5,6,10].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위영역 중 연령의 경우 45세 이상에서 문제해결능력이 3.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은 경우 사회 경험이 20대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25],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연령 보다 학년으로 조사하였거나, 연령 분류를 하

였어도 25세 이상을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학과에 정원의 특별전형을 통한 입학생들의 연령이 정원 내 입학생보다 연령이 높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실제 임상사례 제시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한다[18,19].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가 임상에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이번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 1년 이상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3.28점)와 유사하였다[26]. 반면에 두 개의 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간호학과 재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3.55점) 및 2020년 이후 시행된 연구에서의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이번 연구보다 높았다[27-29]. 이는 연구대상과 환경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위영역에서 학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수행능력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 연령, 학점, 진학 동기,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등 다양한 요인이 그릿,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릿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릿과 학점은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것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추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087-1101.
DOI : 10.1037/0022-3514.92.6.1087
- [2] I. S. Park & S. S. Ahn.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grit of new students of nursing college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3(4), 1-12.
DOI : 10.18014/hsmr.2019.13.4.01
- [3] A. L. Duckworth, P. D. Quinn & M. E. Seligman (2009).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40-547.
DOI: 10.1080/17439760903157232
- [4] K. R. Shin, J. W. Hwang & S. J. Shin. (2008). Concept analysis on the clinical critical thinking ability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5), 707-718.
- [5] S. J. Kim, G. J. Jang. (2022). Grit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Distress Tolerance and Self-directednes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7(2), 126-132.
DOI: 10.21032/jhis.2022.47.2.126
- [6] H. Bae & Y. Kim. (2023). The Influence of Nunchi and Grit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9), 99-106.
DOI : 10.5762/KAIS.2023.24.9.99
- [7] S. J. Lee, Y. K. Chang, H. N. Lee & K. Y.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34, 74-90.
- [8] S. K. Chau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8(1), 71-78.
- [9] A. Gulsum. (2016). Problem-solving training: effects on the problem-solving skills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EJER* 16(64), 231-246.

- DOI: 10.14689/ejer.2016.64.13.
- [10] Y. J. Han. (2020). The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Nursing and Health Issues*, 25(2), 111-118.
DOI: 10.33527/nhi2020.25.2.111
- [11] M. O. Kim.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DOI : 10.5762/KAIS.2016.17.6.609
- [12] C. Barrett & F. Myrick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2), 364-371.
DOI : 10.1046/j.1365-2648.1998.00511.
- [13] K. N. Kim. (2023). The effects of grit, ego resili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15), 1-11.
DOI : 10.22251/jlcci.2023.23.15.1
- [14] M. S. Lee.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4), 170-179.
DOI: 10.5762/KAIS.2023.24.4.170
- [15] E. J. Im., & J. S. Lee. (2022). The Effect of Grit,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7(2), 399-406.
DOI: 10.21097/ksw.2022.5.17.2.399
- [16] H. J. Won. (2023). Effects of Grit in Nursing Stud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15(1), 89-95.
DOI: <https://doi.org/10.14702/JPEE.2023.089>
- [17] H. R. Nam. (2023). The Effects of Gr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Depression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8(1), 99-103.
DOI : 10.31152/JB.2023.02.8.1.99
- [18] J. Y. No. (2023).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Academic Emotion Regulation and Grit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8(2), 7-12.
DOI : 10.31152/JB.2023.04.8.2.7
- [19] Y. S. Kim. (2022).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Grit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9), 451-460.
DOI : 10.5392/JKCA.2022.22.09.451
- [20] H. Park, K. Lee & N. Shin.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inical nurses grit scale (CN-GR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6(1), 55-64.
DOI : 10.11111/jkana.2020.26.1.55
- [21] P. P. Heppner & C. H. Petersen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1), 66-75.
DOI : 10.1037/0022-0167.29.1.66
- [22] W. Lee, J. Kim, J. Yoo, H. Heo, K. Kim & S. Lim (1990).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clinic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Journal of Nursing*, 3(3), 17-2.
- [23] M. Choi. (2005). A study on the teaching efficiency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4] K. S. Jeong. (2022). The Influence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 Occupational Values and Worry on Nursing Student's Gri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2), 303-311.
DOI: 10.5762/KAIS.2022.23.12.303
- [25] H. J. Kim, J. H. Kim. (2021).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12), 152-162.
DOI: 10.5762/KAIS.2021.22.12.152
- [26] Y. Song & J. Lee. (2020).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2), 157-166.

DOI : 10.5977/jkasne.2020.26.2.157

- [27] H. S. Park & J. Y. Han. (2015).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3), 695-706.

DOI : 10.74 65/jkdi.2015.26.3.695

- [28] S. H. Cho & K. S. Yun. (2020). Effects of gri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4(2), 117-129.

DOI : 10.12811/kshsm.2020.14.2.117

- [29] E. M. Ji & E. J. Kim. (2021).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9(2), 1526-1534.

DOI: 10.15205/kschs.2021.12.31.1526

박인희(Inhee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 2014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7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7년 3월~현재 :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 E-Mail : park0200@shinsung.ac.kr

김현주(Hyun Joo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1년 8월 : 건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석사)
- 2015년 8월 : 건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박사)

- 2015년 9월 ~ 2022년 3월 :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3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정책, 의료관리, 기본간호
- E-Mail : hyjkim2012@gmail.com